
2020학년도 중앙대학교

수시모집 논술전형

- 인문사회계열 I 문제지 -

대학	학과(학부)	수험 번호	성명

□ 답안 작성 시 유의 사항

1. 문제지는 표지를 제외하고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 연습지가 필요한 경우 문제지의 여백을 이용하십시오.
3. 답안지의 수험 번호 표기란에는 반드시 컴퓨터용 수성 사인펜으로 표기하고, 답안은 흑색 필기구를 사용하여 작성하십시오.
4. 답안은 원고지 작성법에 따라 작성하십시오(숫자, 수식, 표 등은 예외).
5. 주어진 답안 작성 분량을 지키고(띄어쓰기 포함) 답안지는 한 장만 사용하십시오.
6. 답안을 작성할 때 답과 관련된 내용 이외에 어떤 것도 쓰지 마십시오.
7. 제시문 속의 문장을 그대로 옮겨 쓰지 마십시오.
8. 시험 종료 30분 전부터 답안지 교체는 불가합니다.
9. 휴대폰 등 전자기기는 전원을 끄고 가방에 넣어 바닥에 내려놓으십시오. 시험 중 휴대폰(전자기기 포함)이 울리면 부정행위로 간주하고 즉시 퇴실 조치합니다.
※ 지정 구역을 벗어난 답안은 채점이 불가능함.
※ 수정액, 수정테이프 절대 사용 불가함.

※ 위의 내용을 정확하게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 응시자 성명 _____(서명)



CHUNG-ANG UNIVERSITY

[인문사회계열 I]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가) '처녀가 용왕 사는 소(沼) 있는 천곡*에 오기가 힘들어 그렇지 일단 오기만 하면 용왕은 최단 시간에 백발백중 아들을 점지한다.'는 전설대로 일곱 달도 지나지 않아 처녀는 아이를 낳았다. 당연히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었다. 그런데 그때부터 동네에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처녀가 어떤 연고로 황만근에게 시집을 왔는지 황만근은 물론 처녀나 시어머니 모두 입을 열지 않았고 버린 자식 취급하는 처녀의 친절에서 사람이 찾아올 리도 없는데, 어떻게 된 건지 동네 사람들이 처녀가 집을 나온 전말을 샅샅이 알게 되었던 데다 없는 이야기까지 덧붙여져서 황만근이 없는 데서는 애깃거리가 그것뿐인 듯했다. 처녀는 아이를 낳은 지 삼칠일이 되던 날, 온다간다 말도 없이 사라져 버렸다. 혼인 신고를 하지 않았으니 처녀는 여전히 처녀였다. 총각 황만근은 아들을 강보에 싸안고 젓동냥을 하러 신대 1리에서 3리까지 매일 돌아다녔다. 아이는 몸무게가 열 근이 넘어서도 아버지에게 업히거나 아버지의 경운기에 실려 다니며 사람과 소의 젖을 얻어먹었다. 집에 있는 아이의 할머니는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지 몰랐고 알았다 하더라도 손 하나 까딱할 리 없었다. 모든 건 황만근의 책임이었고 일이었다.

황만근의 어머니와 아들, 조손은 입맛이 까다로워 비린 반찬이 없으면 먹지를 앓는가 하면 비린 반찬이 있으면 밥상머리에서 돌아앉았다. 한 끼에 두 번 상을 차리는 일이 예사였다. 어머니 한 상, 아들 한 상이었고 본인은 상이 없이 먹었다. 황만근은 하루 일이 끝나면 반드시 경운기에 고기를 매달고 집으로 돌아왔다. 일을 하는 동안 논 주변에서 잡은 붕어나 메기, 미꾸라지, 혹은 메뚜기, 방아깨비라도 짚에 꿰어 들어왔다. 동네에서 이따금 잡는 소나 돼지, 개, 닭, 오리, 토끼 같은 가축 모두 숨을 끊는 것에서부터 내장을 손질하고 뼈에서 살을 발라내는 포정*의 업에는 황만근이 반드시 필요했다. 스스로의 필요에 의해 오래도록 자주 하다 보니 어느새 전문가가 된 것이었다. 그는 그런 일을 해 주고 얻어 온 고기를 뜨고 굽고 찌고 데치고 삶고 끓이는 데도 이골이 났다. 어쩌다 그가 만든 음식에 숟가락을 대 본 사람은 이구동성으로 감탄을 하게 마련이었다.

황만근은 또한 책에 나오는 예는 몰라도 염습*과 산역*같이 남이 꺼리는 일에는 누구보다 앞장을 섰고 동네 사람들도 서슴없이 그에게 그런 일을 맡겼다. 똥구덩이를 파고 우리를 짓고 벽돌을 찍는 일 또한 황만근이 동네 사람 누구보다 많이 했다. 마을 길 풀 깎기, 도랑 청소, 공동 우물 청소…… 용왕제에 쓸 돼지를 산 채로 묶어서 내다가 싫다고 요동질하는 돼지에게 때때옷을 입히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 일에는 그가 최고의 전문가였다. 동네의 일, 남의 일, 낯은일에는 언제나 그가 있었다.

*천곡: 내와 골짜기를 아울러 이르는 말.

*포정: 소나 개, 돼지 따위를 잡는 일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

*염습: 시신을 씻긴 뒤 수의를 갈아입히는 일.

*산역: 시체를 묻고 뉘를 만들거나 이장하는 일.

(나) 칼뱅은 신의 절대적 권위를 내세워, 신에게 선택받은 사람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예정설을 주장하였다. 그런데 이처럼 구원이 미리 정해져 있다면, 우리는 자신이 구원받을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 이에 대한 답으로 칼뱅은 '직업 소명설'을 주장하였다. 그에 의하면, 직업은 신이 우리에게 내린 '소명'이며, 인간의 직업 노동은 지상에서 신의 영광을 실현하는 수단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근면·성실하게 생활하여 직업에서 성공한다면 그것이 바로 신에 의해 선택받았음을 보여 주는 징표라는 것이다.

칼뱅 역시 루터처럼 중세 수도사의 탈세속적이고 내세 지향적인 삶보다는 현세의 직업에 충실하며 금욕적이고 근검·절약하는 삶을 강조하였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금욕적인 삶의 원칙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직업에 근면·성실하게 임하는 것이다. 프로테스탄트는 합법적인 방법을 통한 재산 축적이 그리스도인의 소명을 다하는 것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은 오히려 하느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으로 보았다. 프로테스탄트 교회의 이러한 가르침은 한 인간이 종교적인 구원을 얻고자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지침이 되었고, 당시의 경제적인 상황과 결부되어 자본주의의 윤리적 기반으로 자리매김하면서 자본주의의 성장과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다) 긴긴 여름, 게다가 나는 여러 일터를 전전했다. 오후엔 주유소에서, 또 밤에는 편의점에서. 일터를 돌다 보면 별의별 일들을 겪게 마련인데, 모쪼록 그해의 여름이 그러했던 생각이다. 주유소에선 시간당 천오백 원을, 편의점에선 천 원을 받았으므로 나는 늘 불만이 가득했다. 그게 그러니까, 시작 때와 달리 불만이 생기는 것이다. 편의점 사장은, 이러면서 세상을 배운다라고 말했지만, 이천 원씩 받고 배우면 어디가 덧나나? 글썽 천 원이라니. 덩기만 덩고, 짜디짤, 지구.

코치 형이 가게를 찾아온 것은 그 무렵의 새벽이었다. 어떠냐? 좋아요. 편의점 알바 역시 코치 형의 소개로 얻은 것이므로, 좋다고밖에 말할 도리가 없었다. 지역의 알바 정보를 한 손에 쥐었다고 할까, 아무튼 그래서 후배들에게 일자릴 소개하고 요모조모 코치하길 좋아하는 인물이었다. 이 얼마나 요긴한가, 나는 카프리션 하나를 꺼내 그에게 건넸다. 제 돈으로 사는 거예요.

그건 그렇고, 너 푸시업 잘하냐? 푸시업이라뇨? 팔 굽혀 펴기 말이다. 무조건 잘한다고 나는 대답했다. 그래야 일자리가 생긴다는 건, 그때도 이미 기본 중의 기본이었다. 페이가 세. 시간당 삼천 원인데……, 대신 몸이 좀 힘들어. 삼천 원이오? 앞뒤 썰 것도 없이, 시간당 삼천 원이란 말에 귀가 확 뚫리는 기분이었다. 내 주변에 그런 고부가 가치 산업이 존재하고 있었다니. 좋구말구요. 그런 이유로, 나는 푸시맨*이 되었다. 좋은 점은 전철을 공짜로 탄다는 것, 팔 힘이 세진다는 것, 게다가 다른 알바에 전혀 지장을 안 준다는 거야. 이를테면 여기 일을 마친 다음 슬슬 역에 나가 '한 따까리' 하면 그만이란 거지. 깔끔해. 공사 소속이니 지불 확실하지, 운동이 되니 밥맛도 좋아, 그러니 잠 잘 자고 주유소 일도 계속하고……. 코치 형의 코치가 쉬지 않고 이어진 것도 까닭은 까닭이었지만 다른 무엇보다 이유는 삼천 원이었다. 요는 짧고 굵게 번다, 이거군요. 그것이 나의 산수다. 웃건 말건, 세상엔 그런 산수를 하며 살아야 하는 사람이 있다, 있게 마련이다.

미안하구나.

아버진 그렇게 얘기했다. 또 그 소리. 내가 일만 한다 하면 늘 같은 소리였다.

처음엔 들을 만했는데, 결국 들으나 마나가 돼 버린 지 오래다. 나이 마흔다섯에 시간당 삼천오백 원, 즉 그것이 아버지의 산수였다. 여하튼 무슨 상사에 다녔는데, 여하튼 '무슨 상사'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직장이었다. 딱 한 번 나는 그곳을 찾아간 적이 있다. 중학생 때의 일인데 도시락을 갖다 주는 심부름이었다. 간신히 찾아낸 아버지의 사무실은 여하튼 그곳에 있기는 한, 그런 사무실이었다. 쥐들이 다닐 것 같은 어둡한 복도와, 형광등과, 철이 벗겨진 목조의 문. 혹시 외국인가? 라는 생각이 들 만큼이나 '을씨년'스러운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꼬박꼬박 도시락만 먹어 온 얼굴의 아버지가 가냘픈 표정으로 사무를 보고 있었다. 아버지, 저 왔어요. 원래 좀 노는 편이었는데, 이상하게 그날 이후 나는 조용한 소년이 되어 버렸다. 뭐랄까, 그때는 몰랐지만 그 순간 마음속에 '나의 산수'와 같은 게 생겨났기 때문이었다. 말수가 줄어든 대신, 나는 열심히 알바를 하고 돈을 모으기 시작했다. 인간에겐 누구나 자신만의 산수가 있다. 어쩌면 그날 나는 '아버지의 산수'를 목격했거나, 그 연산의 답을 보았거나, 혹 그것을 고스란히 물려받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도시락을 건네주고, 산수를 받았다.

*푸시맨: 혼잡한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역에서 승객들을 지하철 안으로 밀어 넣어 주는 사람을 일컫는 말.

(라) 벽을 붙이고 지붕 올리는 일이 완료되자마자 나는 입주를 했는데 그날은 바로 7월 4일이었다. 벽의 판자들은 모서리를 비스듬히 깎아 빈틈없이 맞붙였기 때문에 비는 조금도 새지 않았다. 벽을 붙이기에 앞서 두 수레분의 돌을 숲속 호숫가에서 언덕 위까지 팔에 안아 나른 후, 집 한 모퉁이에 굴뚝의 토대를 쌓았다. 나는 가을 내내, 밭일을 한 뒤 굴뚝 작업을 했다. 추위 때문에 불이 필요해지기 전에 일을 마치려고 했던 것이다. 그동안은 아침 일찍 집 밖 한데에서 음식을 만들었는데, 어떤 점에서는 이것이 더 편하고 재미있는 취사 방법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을 지금도 하고 있다. 빵이 다 구워지기도 전에 비바람이 불 때는, 불 위에 판자 몇 장을 세워 놓고 그 밑에 앉아 빵을 지켜보면서 즐거운 몇 시간을 보내곤 했다.

겨울이 닥치기 전에 나는 굴뚝을 완성했다. 그리고 비가 썰 염려는 없지만, 사방의 외벽에다가 널빤지들을 대었다. 그런데 이 널빤지는 통나무를 처음 다듬을 때 켜낸 들쭉날쭉한 생나무여서 대패로 옆을 반듯하게 밀어 주어야 했다. 이렇게 해서 나는 빈틈없이 널빤지를 대고 석회를 바른 집 한 채를 갖게 되었다. 집은 길이가 15피트, 폭이 10피트, 그리고 기둥의 높이가 8피트였는데 다락방과 벽장이 있고, 양쪽에는 커다란 유리창이 하나씩 있었으며 뚜껑 문도 두 개 있었다. 출입문은 한쪽 끝에 있고 그 맞은편에 벽돌로 된 벽난로가 있었다. 나는 이 집을 짓는 데 든 정확한 건축 비용을 따져 보았다. 모든 일을 나 스스로 했으니 노임은 제외했고, 사용한 자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시세로 계산했다. 합계 28달러 12½센트. 이것이 내가 사용한 자재의 전부이다. 나는 내 통나무집 바로 옆에 자그마한 헛간도 하나 지었는데, 집을 짓고 남은 자재를 주로 썼다.

내가 숲으로 들어간 것은 인생을 의도적으로 살아보기 위해서였다. 다시 말해서, 인생의 본질적인 사실만을 직면해 보려는 것이었으며, 인생이 가르치는 바를 내가 배울 수 있는지 알아보려고 했던 것이며, 그리하여 마침내 죽음을 맞이했을 때 내가 헛된 삶을 살았구나 하고 깨닫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아직도 우리는 개미처럼 비천하게 살고 있다. 우화를 보면 우리는 이미 오래전에 개미에서 인간으로 변했다고 하는데도 말이다. 간소하게, 간소하게, 간소하게 살라! 제발 바라건대, 여러분의 일을 두 가지나 세 가지로 줄일 것이며, 백 가지나 천 가지가 되도록 두지 마라. 문명 생활이라고 하는 이 험난한 바다 한가운데서는 구름과 태풍과 그리고 천 가지하고도 한 가지의 상황을 파악해야 하므로, 배가 침몰하여 바다 밑에 가라앉아 목표 항구에 입항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추측 항법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뛰어난 계산가가 아니면 성공하기 어려운 것이다. 지금 우리의 국가는 너무 서두르고 있다. 사람은 국가가 사업하고 얼음을 수출하고 전신으로 통신하며 한 시간에 30마일을 달리는 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그에 대한 아무런 의아심도 품지 않는다.

왜 우리는 이렇게 쫓기듯이 인생을 낭비해 가면서 살아야 하는가? 우리는 배가 고프기도 전에 굶어 죽을 각오를 하고 있다. 사람은 제때의 한 바늘이 나중에 아홉 바늘의 수고를 막아 준다고 하면서 오늘 천 바늘을 꿰매고 있다. 일, 일, 하지만 우리는 이렇다 할 중요한 일 하나 하고 있지 않다.

(마) 정치 철학자로 알려진 아렌트 여사는 우리가 보통 '일'이라 부르는 활동을 '작업'과 '고역'으로 구분한다. 이 두 가지 모두 인간의 노력, 땀과 인내를 수반하는 활동이며, 어떤 결과를 목적으로 하는 활동이다. 그러나 전자가 자의적인 활동인 데 반해서 후자는 타의에 의해 강요된 활동이다. 전자의 활동을 창조적이라 한다면 후자의 활동은 기계적이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종류의 일이 '작업'으로 불릴 수 있고 어떤 일이 '고역'으로 분류될 수 있는냐는 그리 쉬운 문제가 아니다. 모든 일이 '작업'으로서의 일은 아니다. 어떤 일은 부정적인 뜻으로서의 '고역'이기도 하다. 회초리를 맞으며 노예선을 짓는 노예들의 피땀 묻은 활동은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지는커녕 그들을 짓밟은 '고역'이다. 위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견디기 어려운 조건하에 타당치 않게 박한 보수를 받고 무리한 노동

을 팔아야만 하는 일은 마땅히 없어져야 할 고역이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의 구별은 단순히 지적 노고와 육체적 노고의 차이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는다. 한 학자가 하는 지적인 일도 경우에 따라 고역의 가장 나쁜 예가 될 수 있다. 반대로 육체적으로 극히 어려운 일도 경우에 따라 적업*의 가장 좋은 예가 될 수 있다. 작업으로서의 일과 고역으로서의 일을 구별하는 근본적 기준은 그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높이는 것이냐, 아니면 타락시키는 것이냐에 있다. 인간의 존엄성은 인간의 자율성에 있다. 그런데 똑같은 일, 똑같은 고통스러운 육체적 혹은 정신적 노력의 집중도 일하는 당사자의 주체적 사고방식에 따라 자율적이거나 타율적일 수 있다.

*적업: 능력이나 적성에 알맞은 직업.

(바) 새로 거른 막걸리 젓빛처럼 뿌영고
 큰 사밭에 보리밥, 높기가 한 자로세.
 밥 먹자 도리깨 잡고 마당에 나서니
 검게 탄 두 어깨 햇볕 받아 번쩍이네.
 옹헤야 소리 내며 발맞추어 두드리니
 삽시간에 보리 낱알 온 마당에 가득하네.
 주고받는 노랫가락 점점 높아지는데
 보이느니 지붕 위에 보리 티끌뿐이로다.
 그 기색 살펴보니 즐겁기 짝이 없어
 마음이 몸의 노예 되지 않았네.

(사) 생산성이 높은 근로자가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이 전통적인 경제학의 설명이다. 그러나 이와 반대로 임금의 크기가 생산성의 결정 요인이 된다고 보는 것이 효율 임금 이론이다. 즉, 임금이 높으면 열심히 일하려는 유인이 생긴다고 보는 것이다. 이 점에 착안한 기업은 일부러 균형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열심히 일하게끔 하기도 한다. 1914년 1월, 근로자들의 사기 저하와 생산직에서의 높은 이직률로 골머리를 앓던 헨리 포드는 직원들의 일당을 그 당시 평균 임금의 두 배인 5달러로 올렸다. 그것은 분명히 효과가 있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이 같은 임금 상승 이후에 포드의 자동차 회사는 14% 적은 노동자들로 일일 자동차 생산량을 15% 올렸다고 보고하였다. 시장에서 통용되는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을 받는다는 것을 아는 근로자는 일을 게을리 할 수 없다.

(아) 토포리(torporer)는 매우 긴 잠을 자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토포리들은 짧게는 두 달에서 길게는 이 년 동안 먹지도 깨지도 않은 채 내내 잠만 잔다. 사실 그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가리지 않고 아무 때나 잠이 들고 또 아무 때나 일어난다. 당연히 굴을 파서 땅속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몸속에 과도한 지방을 축적하지도 않는다. 그들은 꿈이 아닌 것이다. “혹시 냉동 인간을 말하는 건가요?” 하고 묻는다면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다.

“아닙니다. 그들은 그냥 이불을 덮고 베개를 베고 잡니다.”

시간이 곧 돈으로 환금되는 21세기에 토포*는 재앙이다. 그러나 어떤 사람에게는 축복이기도 하다. 가스 설비 부품 회사의 사장인 허 씨는 토포 예찬론자다.

“계약일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중동 시장에 걸려 있는 마지막 플랜트 부품 계약이었는데, 말 그대로 회사의 사활이 걸려 있었죠. 무척 바빴어요. 직원들과 관계도 나빠졌고요. 야단치고, 싸우고, 성질도 많이 냈죠. 직원들이 제 마음만큼 안 따라주더군요. 야속했어요. 불안이 엄습했어요.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러다 점점 잠을 자지 않는 날이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몸은 천근만근이었는데 이상하

게 누우면 잠이 오질 않았어요. 머릿속에서 물방울 같은 것이 자꾸 솟아오르는 것 같고, 제 자신이 다른 사람처럼 낯설게 느껴질 때가 많았어요.”

“프로젝트는 어떻게 되었나요?”

“실패했어요. 영국이 기술을 대고 베트남 현지에서 생산하는 합작 회사가 계약을 따냈거나 봐요. 기술력, 가격 둘 다에서 참패였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짐을 챙겼어요. 예전에 낚시하러 다닐 때 사 둔 산장이 있었거든요. 뭐, 거창한 산장은 아니고 조그만 오두막 같은 곳이에요. 거기로 갔어요. 어찌나 울었는지 울다가 그만 탈진이 되어 버렸어요. 오두막 한 쪽에 짚단이 가득 쌓여 있었는데 그곳에 들어가 잠이 들었어요. 백칠십이 일 동안.”

“몸은 어떻던가요?”

“상쾌했어요. 새로 태어난 것 같았어요. 조금 야위기는 했지만 괜찮았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죠. 돌아오니 모든 게 엉망이었어요. 당연히 엉망이겠죠. 그렇게 무책임하게 떠나고 연락도 안 되니.”

*토포: 무기력, 흥미를 뜻하는 말이지만, 생물학적 용어로는 온혈 동물의 동면을 뜻함.

(자) 런던이나 몇몇 지방에서는, 목수는 자신의 정력이 왕성한 상태를 8년 이상 유지할 수 없다고 한다. 이와 비슷한 현상들은 성과급제가 실시되고 있는 다수의 기타 업종에서 나타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제조업에서, 그리고 임금이 보통보다 높은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심지어는 농업 노동에서도 나타난다. 거의 모든 종류의 수공업자는 특수한 작업에 지나치게 몰두하기 때문에 생기는 독특한 질병에 시달리고 있다. 이탈리아의 유명한 의사인 라마치니는 이러한 질병에 대해 한 권의 책을 썼다. 우리는 우리의 사병들이 우리 중에서 가장 근면한 사람들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나 사병들이 어떤 특정 작업에 고용되어 성과에 따라 임금이 지불될 때, 장교들은 사병들이 성과급에 따르더라도 매일 일정한 금액 이상을 초과해서 벌 수 없다고 명문화해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다. 이 규정이 명문화되기 전에는 상호 경쟁과 더 많이 벌려는 욕망 때문에 사병들은 과로하고, 이 과로 때문에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많았다. 일주일 중 나흘 동안 지나치게 일에 몰두한 것이 나머지 사흘을 빈둥거리는 것의 진정한 원인인데도 이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많다. 정신적인 노동이든 육체적인 노동이든 간에 계속해서 며칠간 많은 노동을 하고 난 후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쉬고 싶은 욕구가 생긴다. 이 욕구는 폭력 또는 어떤 강력한 필요성에 의해 저지되지 않는 한 거의 억제할 수 없다. 이 휴식에 대한 욕구는 본성의 요구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때로는 편히 쉬는 것에 의해, 때로는 유희와 오락에 의해, 그 요구는 충족되어야 한다. 그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흔히 위험하고 때로는 치명적이며, 거의 언제나 조만간 특유한 직업병을 유발하게 된다. 적당히 일함으로써 계속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자신의 건강을 가장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일 년 전체로 보면 더 많은 양의 일을 한다는 사실이 모든 업종에서 판명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차) 여가라는 것을 단순히 '노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생각이라고 할 수 있다. 여가는 삶의 질을 향상하는 것은 물론 자아 성장, 건강 증진, 스트레스 해소, 여유 있는 삶의 영위, 여가 활동을 통한 도전 정신의 만족감 부여, 일과 여가의 균형 잡힌 삶, 자아 존중감의 유지 등을 가능하게 해 주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여가의 필요성을 간과하거나 잘못된 여가에 대한 고정 관념을 가지고 있다면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미래를 준비하는 데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무릇 산업 사회에서는 노동하는 인간 호모 파베르가 전부였다. 그러나 21세기는 놀이하는 인간, 즉 호모 루덴스의 시대다. 앞으로는 창의력에 기초한 '일하듯 놀고 놀듯이 일하는 사회'가 더욱 보편화될 것이다.

[문제 1] 제시문 (가), (나), (다), (라)에서 일을 하는 근본적인 '동기'와 일을 통해 드러난 '삶의 방식'을 각각 찾아 하나의 완성된 글로 논술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2] 제시문 (마)의 논지를 근거로 제시문 (라)에 나타난 일의 의미를 설명해 보고, 제시문 (바)에 묘사된 모습에 다가가기 위해 필요한 조건을 제시문 (마)와 (사)를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40점, 550-570자]

[문제 3] 제시문 (아)의 '허 씨'가 '토포' 상태에 이르게 된 원인을 제시문 (자)를 활용하여 설명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문 (자)와 (차)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시오. [20점, 400-420자]